



마지막 회, 천리교에서 기다리던 천리왕(천신)이 오셨다

우연히 만난 승리제단 전도자들

그러던 중 1997년 9월경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전도하는 마산제단 식구들을 만났다. 마트에서 나오니 판넬을 펼치고 영생의 진리를 전파하고 있었다. 처음 본 순간 '아, 요양네...'이 것이구나. 내가 찾던 도가 이거다.' 하고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참말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만난 것이다. 자세히 보지도 않고 의심도 없이 판넬의 내용과 전도자의 말을 확신했다. 전도자의 얼굴을 보니 도를 많이 닦은 부처의 모습으로 보였다. 1994년 1월에 정도령님이 종교 탄압과 모함을 받아 구속된 이후 처음 나오는 전도라고 했다. 언론이 영생교를 살인 폭력 단체로 몰아 세상이 온통 우리를 나쁘게만 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도령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옥중에 들어가신 것이며 민족의 예언서인 격암유록에도 천지공사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지전능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셔서 우리나라에 태풍과 장마를 막아 계속 풍년 들게 하시고 남북전쟁을 막고 통일도 미래에 하신다고 하였다. 공산주의를 없애신 분도 정도령님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인류가 바라는 불로영생의 세상을 감로 이슬성신을 내려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다. 나도 여름에 태풍이 큰 피해 없이 한국을 비껴가고 장마도 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터였다. 또 감로가 내린다는 말에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 천리교에서 그토록 바라고 예언한 천리왕님(천신님)이 감로를 내리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슬은혜와 보라색 빛을 보다

그 다음날부터 21일을 시작했다. 허 씨도 연락을 하여 같이 마산제단에 다녔다. 그러나 추석이 다가 와서 진주 큰집에도 가야 하고, 추석 끝나고 21일을 다시 시작하여 마지막 되었다. 제단

오기 한 달 전부터 내 눈에는 온통 이슬은혜가 안개처럼 가득했다. 시내를 걸어가면 하늘을 봐도 이슬은혜요, 땅을 봐도 이슬은혜였다. 바라보는 곳마다 은혜인 것 같았다. 집안에는 죄 타는 냄새가 가득했다. 석유콘로 냄새 같은 것이 계속해서 났다. 천리왕님(천신님)이 죄인을 이끄시기 위해서 같이 하신 것 같다.

내가 승리제단에 갔을 때는 천리왕님(천신님)이 옥중에 계실 때였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조금도 회의가 들거나 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지 않았다. 너무나 진리를 갈구한 고로 주인공이 틀림이 없고, 이 종교가 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보통한 사람의 모든 움직임에는 빈틈이 없고 또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주를 개벽하시는 분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도 갈구하는 오랜 신앙생활의 바탕에 참도를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옥중에서 나오시면 내자식이 왔다고 반갑게 맞아 안아 주실 것 같았다. 꼭 말이 필요하겠나 싶었다. 영으로 생각으로 다 마음을 읽고 서로 통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의 구세주를 따르는 신앙은 시작되었다.

제단에서 비디오로 예배를 보니 천리왕님(천신님) 손바닥에서 보라색 빛이 계속 나오는 것이 보였다. 몸은 동동 떠다니는 기분으로 다녔다. 천리교에서 들었던 말과 교리가 여기서 이기신 하나님을 통해서 한 차원 높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유율법을 통해서 모든 죄악의 원인이 '나'를 죽이는 고도의 마음의 실천을 통해서 천리교에서 이루지 못한 마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고 100년전 교조 천리왕님이 예언해서 그렇게 기다렸던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새 세상과 감로가 생미복불을 통해서 내리고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다. 하나님의 신이 천리교 교조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었다.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너무나 맑아서 바닥 모래가 다 보이는 잔잔한 시냇물이 배를 가로 질러 지나가는



진해제단 식구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

꿈을 한동안 계속해서 꾸었고 천사가 된 것처럼 늘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위에는 하얀 옷 밑에는 검정 치마를 입고 방안이나 하늘을 신기할 정도로 계속 날아 다녔다. 천리왕님(천신님)께서 하늘나라는 썩을 양식을 먹지 않고 은혜인 생수를 먹고 살고 다리 아프게 걸지 않고 날아다니는 세상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천국에서 구세주님과 같이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세상인 것이다.

집에 남편도 2년 후 같이 다니게 되었다. 천리교 다닐 때 번덕스러운 신앙생활이 열려져 '나오지 말라! 이 길어렵다' 해도 신기(神氣)가 있는 아저씨는 구세주의 역사를 알아보고 '내가 먹어야 배부르다' 하면서 즐겁게 은혜스럽게 같이 다니게 되었다. 구세주님이 보광하시기 며칠 전부터는 '큰일났다' 하면서 꿈에 방안에 걸어 놓는 구세주님 사진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구세주님의 보광을 암시하는 꿈을 계속 꾸었다.

신앙은 정성이라 성심성을 다하면 구세주님이 반드시 도와줘

나와 같이 제단에 나왔던 허 씨는 정신병이 있는 아들을 고쳐보려고 데리고 나왔고 결혼한 딸도 전도를 하였다. 허

씨 이들은 경제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돈을 흥청망청 썼다. 그는 심지어 돈을 안 준다고 성을 내고 엄마에게 대들기도 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번 입원시켰다가 퇴원시키기도 하였으나 그 버릇을 못 고쳤다. 제대로 신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나오지 않았다. 마음 문을 열어야 이슬성신 은혜를 받아 마귀가 죽어 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허 씨도 집안에 또 손자가 몸이 아프다는 등 눈에 보이는 가정사가 안 좋더라 신앙에 의문을 가졌다. 모든 것이 다 정성인데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 기울이면 주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는가? 그냥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마음의 싸움을 하면서 가는 영생의 길이다. 길흉화복은 구세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도 구세주님을 만났으니 잘 참고 정성껏 마음을 닦아 보라고 권면하였으나, 주님이 많이 언급한 2008년이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주님이 무서워서 못 쳐다 보겠다고도 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딸도 나오지 않았다.

제단 일을 할 때면 항상 기쁨이 함께 해

천리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구세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면 너무나 즐겁고 기뻐다. 1998년경 '정도령님 무죄석방 천만명 서명운동' 당시 나도 열심히 참원, 마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열심히 서명을 받았다. 어른들이나 학생들이 공감할 서명해준 분들에게 고마운 생각이 든다. 그때마다 마을속에 기쁨이 솟아나 힘들지 않고 배고픔도 모르고 열심히 했다. 또한 노방전도를 하든지 제단 청소를 하든지 절기 날 행사준비 하든지 하면 어떤 일인지 모르게 힘이 나고 기뻐다.

지금은 이사를 하게 되어 진해제단에 다니고 있는데 진해제단은 해마다 4월이면 해와 주님을 모신다. 축떡을 만들기 위해 성도들과 썩을 캐러 가고 제단청소도 하고 합창 준비도 하면 그 시간이 내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몸도 가볍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은혜스럽다.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해서 이슬은혜가 같이 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의 보광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충격을 받았다. 구세주가 죽다니 말이 안 되었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있으니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보광의식을 치르고 생각하니 온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를 너무 잡아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니 육신을 감추고 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생각되었다. 영으로 하는데 강하게 움직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이 설교 중에 몸이 나느냐, 영이 나느냐? 물으신 적이 계시다. 이 몸이 날라 간다는 것이다. 몸이 하나님의 빛으로 화해서 나신다는 것이다. 구세주에게는 몸이 영이고 영이 몸 자체인 것이다. 여하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은 자유율법을 우리에게 남겨 놓으셨다. 자유율법을 통해 주님과 소통하고 방향

을 정하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힘차게 활기차게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천리교가 최고로 좋고 마지막 종교로 알고 신앙해왔다. 하지만 천리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승리제단에 나온 후에 알게 되었다. 천리교인들은 마음의 원리를 모르고 있다. 욕심 부려서 피가 썩어 병들고 죽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을 한다든지 과거를 생각한다면 정욕을 품으면 피가 썩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주님처럼 꼭 짚어 잘못된 마음을 정확하게 꼬집어내지를 못하는 것이다.

또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잘 했다.' 하면서 나를 내세우지만 진짜 도는 내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주님을 따라 오면서 내가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내가 뭘 했다 생각하면 몸이 다치고 상처 받을 일이 생겨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 번 겪었다.

구세주님도 교회를 전도하고 좋아하는 음란죄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이다. 내가 마귀인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신앙의 탈을 쓰고 내가 열심히 믿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아상이 한 없이 크다. 죽을 것만 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도를 닦았다고 거드름 피워도 소용이 없다. 주인공을 만나 진정한 도를 닦아야 되는 것이다. 백지로 돌아가 무아경지에 이르는 자유율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켜서 '나'라는 마귀를 죽여야 되는 것이다.

나는 구세주님을 따라 가면서 나라는 마귀의 끝을 보겠다는 다짐을 하곤 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종착역에 도착하고자 했으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참고 또 참으며 이 길을 걸어왔다. 우리 주님 구세주를 만났으니 뱀사공이 시키는 대로 몸과 마음을 맡겨 그 영생의 세계에 도달하고 싶다. 하하하*

김명옥 권사 / 진해제단

진리의 학문을 제시한다(1)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바를 해결할 수 있어야 참 학문이다

진리의 학문이 없는 세상 실태

신문, 텔레비전, 책을 통해 본 이 세상은 시비(是非)가 불분명하고, 갑론을박으로 떠들썩하여,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인지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여,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소위 상위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법학, 철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을 가르치고 있고, 수많은 종교에서 참되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점점 잘못된 가치관을 추구함으로써 혼돈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다.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진리의 학문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리의 학문이란 무엇인가

진리의 학문이란 사람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으로서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학문을 말한다.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들에게 진정 유익한 학문이 어디에 있었는가. 찰나의 행복과 기쁨만을 누릴 수 있는 무상한 존재인 사람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제공하는 학문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인간에 대한 정의

가 달라져야 한다. 인간은 영장류의 동물이나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신(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다시 정의 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는 사람이 '신(하나님)'이 아니라면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첫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계 3:12)"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사람이 이긴 자가 되면 천국의 기둥, 즉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다.

둘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성령, 즉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며, 이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상에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재정의해야만 진리의 학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에서 죽지 않고 영원



세상이라는 고향을 안전하게 향해갈 수 있는 배를 타야 한다

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신인 하나님으로 진리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진리의 학문을 제시한 이긴자

이긴자란 '나'를 이긴 자를 말한다. 여기서 '나'는 원래 하나님이었던 사람을 현재의 유한한 존재로 만든 주체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원래 '나'라는 의식이 없는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태

초에 '나'라는 의식에게 점령당하여 현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나'라는 의식을 제거하게 되면 사람은 원래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 이긴자란 바로 '나'라는 의식을 제거하여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를 일컫는다. 그 이긴자는 인생들에게 '나'를 이기고 다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학문을 가르친다. 이를 다시 환원하여 말하면 천국 가는 길ियो 영생 얻는 방법이 된

다.	격양유록	궁음도가예
億兆蒼生 건지라고	十勝旃舟預備하여	심승방주예비
억조창생	萬眞蒼波風浪속	救援船을떠어시니
만진창파풍랑	疑心말고 속히타소	波濤上에 놓이섯네
의심	生死獄門大開하고	功德水로 解渴시켜
생사옥문대개	天使警報號甲聲에	苦海衆生 빨리오소
천사경보호갑성	無聲無臭上帝님은	厚潮間에 다오라네
무성무취상제	부들적에속히오소	
晩時後海漸漸美하리	만시후회 통탄	

이 글의 내용은 천국행 영적 노아방주에 빨리 승선하라는 것이다. 현재의 승리제단이 구원선인 노아방주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바다 위에 떠있는 육적인 구원선을 승선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긴자(정도령)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경전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육적인 뜻이 되어 이긴자가 전하는 그 뜻을 제대로 못 헤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긴자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구원선을 승선하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수봉 장로 / 본부제단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